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자포럼 회장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민청문회, 기자간담회

9월 2일(월)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 246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선하고 원내 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조국(曹國)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청해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가 아닌 기자 간담회를 집권 여당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초유(初有)의 일이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은 공격적으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여당은 후보자를 방어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타협하여 인사 청문회를 진행시켜야 한다.

인사 청문회가 열려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안했다고 후보자에게 따지고, 여야(與野) 의원 간에 고성으로 설전(舌戰)을 벌이며 오전을 보낸다.

계였다, 사생활이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없다. 가족과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은 국민에게 죄송하다 등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자 간담회는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기자에게는 자료 제출 요청권도 없고, 증인 요청이나 증인 심문권도 없다.

가짜, 한 번 시동(始動)이 걸리면 중지하기가 쯤져럼 어려운 권력의 속성을 보았다. 본인도 그렇지만, 속해 있는 진영(陣營)의 추동적(推動的) 논리와 분위기를 바꾸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것이 인간 심리이고, 자존심이기도 하다.

있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짧은 시간에 후보자의 일방적인 설명과 해명으로는 국민적인 의혹이나 상식에 어긋난 많은 특혜와 비리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짧은 세대에 실망과 상처를 주어서 죄송하다.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대학생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 놓고 국민적인 의혹과 사실로 드러난 특혜와 비리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보면서 탄식이 교차했다.

둘째,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 종합대학이 조국 후보 사퇴와 서울대 교수 사퇴, 조국 딸 대학 입학과 장학금 특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2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김팔, 김바지 입기, 넷째 야외 활동 후 세탁 및 샤워하기 등이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과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진드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국민적인 양심과 정의를 대변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셋째,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의 두 배가 된다. 국민적인 판단은 이미 끝났다.

민중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국민은 평소에는 힘이 없지만, 선거 때 투표가 최대의 무기다.

민중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국민은 평소에는 힘이 없지만, 선거 때 투표가 최대의 무기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경험과 힘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깨어있는 눈으로 잘 지켜보고 있다.

社說

5·18 사적지 관리 강화해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인 옛 광주직접사법원 건물에 매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적지 보존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직접사법원은 항쟁의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과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한 곳이다.

현재 병원 소유자인 서남학원 재단은 1995년 병원을 인수해 서남대 병원으로 운영하다 2014년 적자 등을 이유로 폐쇄했다.

이후 방치된 병원 건물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재산매각 승인을 받고 공개 매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산인 측은 최소 입찰가액을 80~90억원으로 예상한다. 매각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광주시와 동구는 매입을 검토했지만, 예산 문제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가 조례를 통해 5·18 사적지로 지정한 29곳 가운데 사유지 재산은 모두 11곳이다.

두서점 옛터와 광주MBC 옛터, 남동성당, 들불야학 옛터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내년 발주 예정인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에 이러한 사유재산 사적지를 관리·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은 2016년 수립 당시 광주시가 국군통합병원과 505보안부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이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관계 당국은 그때그때 일이 터지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적지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건물과 공간이 남아있는 곳을 보존하는 등 향후 도시의 비전과 연결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의 보존 관리는 광주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할 유산이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사적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요콜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 야생 진드기 주의하세요

야생진드기 활동시기인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쯤쯤가무시증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하다.

쯤쯤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쯤쯤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 오한, 근육통, 기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5~10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진드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두거나 눕지 않기, 둘째 야외 작업시 작업복 입고 장화신기, 셋째 야외 활동시 모자, 토시,

가을철 야생진드기 주의하세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쯤쯤가무시증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하다.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featuring a woman and a man.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 our positions?). Includes contact info fo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Media Development Foundation).